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의 조선어토습득과 사용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우 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째였습니다. 문법구조가 째였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문법구조가 째인 발전된 언어인 조선어의 토는 문법구조의 골격이며 단어결합의 유일한 물질적수단이다.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조선어의 어휘와 함께 토들을 정확히 습득하고 올바르게 쓰는것은 조선어를 배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조선어의 토는 어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편이다. 그것도 모든 토들이 다 같이 언어실천에서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조선어를 습득하는데서 토들을 정확히 습득하는것은 어휘를 습득하는것과 함께 필수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조선어의 어휘와 토들을 정확히 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조선어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조선어로사용의 정확성정도가 곧 언어생활의 정확성정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도 되기때문이다.

실례로 외국인조선어학습자가 《영남이는 어제 우리에게 있었다.(영남이는 어제 우리와 함께 있었다.)》, 《영수네는 모두 도서관에서 있겠다.(영수네는 모두 도서관에 있다.)》라고 한 말이 정확하지 않은것은 조선어의 토를 정확히 쓰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로부터 여기에서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의 조선어토습득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의 조선어토습득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말차림과 말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말차림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대하여 례절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말차림은 조선어에 정밀하게 발전되어있다.

말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설정하는 이야기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다시말하여 말법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가 하는것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조선어에서 례절관계는 주로 존경토 《시》와 말차림의 종결토에 의하여 나타나기때문에 종결토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례절관계가 정확히 표현되는 조선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언어례절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옷사람을 높여서 말하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날씨가 추운데 옷을 든든히 입고 떠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날씨가 추운데 옷을 든든히 입고 떠나거라.》라고 하는것도 언어례절을 바로 지키는것으로 된다.

조선어에서 말법이 말차림과 함께 중요한 문법적범주의 하나로 되는것은 말법에 이야기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때문이다.

말차림을 잘못 쓰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어색하게 만들며 말법을 옳게 쓰지 못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말차림과 말법을 옳바로 쓰는것은 조선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다른 나라 말들에는 말차림이라는 문법적범주자체가 거의 없거나 혹은 있어도 조선어에서처럼 발전되어있지 않으며 말법은 어조나 말차레를 바꾸는 방법 또는 보조적단어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영어에서는 말차레를 바꾸는 방법으로, 로어에서는 어조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중국어에서는 어조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말법을 나타낸다.

언어들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조선어를 배우고 쓰는데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은 말차림, 말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알고 써야 한다.

다음으로 이음토 《고》와 《아(서)/어(서)/여(서)》와 관련된 문제이다.

조선어의 이음토 《고》와 《아(서)/어(서)/여(서)》는 이음토들가운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토들중의 하나일뿐아니라 토전체를 놓고볼 때에도 쓰이는 회수가 높은 토에 속한다.

이음토 《고》와 《아(서)/어(서)/여(서)》는 서로 다른 여러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행동의 진행방식을 나타내는 기능을 다같이 가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리유로 하여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은 조선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서 이 토들을 정확히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한다.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이음토 《고》와 《아(서)/어(서)/여(서)》를 잘못 쓴 오유문장을 보면 《도서관에 가고 소설을 보려고 한다.(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보려고 한다.)》, 《참판단은 숙소를 떠나고 다음목적지에 가고있다.(참판단은 숙소를 떠나서 다음목적지에 가고있다.)》, 《나는 그들을 자주 만났고 이제는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나는 그들을 자주 만나서 이제는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와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우의 실례들에서 《가고》, 《떠나고》, 《만났고》는 단순한 합침이나 행동의 선후관계만을 표현하는것이 아니라 행동수행의 방식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행동수행의 방식이나 원인, 근거 등을 나타내는 이음토 《아(서)/어(서)/여(서)》를 써야 한다.

물론 토 《고》를 《제급의 총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초병들》, 《사랑의 선물을 받고 행복에 겨워 춤추는 학생소년들》 등과 같이 행동진행의 방식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 이 실례에서 《틀어쥐고, 받고》의 《고》의 의미는 《고서》와 같다.

조선어의 이음토 《고》는 앞뒤의 행동을 동일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단순합침의 경우와 한 행동이 끝나고 다음행동이 그에 이어 진행됨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며 보조적으로 쓰이는 《있다, 싶다, 말다, 나다, 보다》 등과 같은 동사들과 자립적동사들이 결합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이음토 《고》와 《아(서)/어(서)/여(서)》가 결합하여 방식이나 수법, 원인이나 근거 등을 표현하는 경우를 잘 알아야 한다.

행동의 주인이 행동을 하는데 관계하는 대상을 자기 몸에 가지고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고(서)》를 쓰며(뒤에는 동사 《취다, 들다, 입다, 신다, 쓰다, 메다, 지다, 엮다, 이다, 안다, 끝다》 등과 같은 단어들을 쓴다.) 나머지 경우에는 《아(서)/어(서)/여(서)》를 써야 한다.

례:○ 가방을 메고 교실에 간다. 바지를 걷고 강을 건는다.

○ 종이를 모아 공장에 보냈다. 동무를 만나 누나의 소식을 들었다.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은 이음로 《고》와 《아(서)/어(서)/여(서)》의 쓰임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원리적으로 잘 습득하고 언어생활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형용사가 पुल이형으로 쓰일 때 그 문법적형태와 관련된 문제이다.

형용사의 문법적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사와 같지만 종결술어의 낮춤의 말차림과 시킴, 추김의 말법 그리고 규정어(현재와 과거)에서는 동사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기쁘다, 슬프다, 반갑다, 춥다, 덥다, 좋다, 나쁘다, 아프다, 달다, 쓰다》 등과 같은 감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1인칭이 주어로 될 때에는 동사와 동일한 문법적형태를 가질수 있지만 2인칭, 3인칭이 주어로 될 때 그에 맞물리는 पुल이형에서 동사와 동일한 문법적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실례로 형용사 《춥다》는 1인칭의 पुल이형에서는 《나는 춥다.》라고 쓰지만 2인칭, 3인칭이 주어로 될 때에는 《너는 춥다.》, 《그는 춥다.》가 아니라 반드시 《추워한다》로 쓰인다.

2인칭, 3인칭의 주어와 우와 같은 형용사들의 पुल이형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형용사의 뿌리에 《아/어》와 《행동성》을 부여하는 《하다》를 붙여써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객관적립장에서 말할 때 3인칭에 대하여 《분석적형태》를 쓰지 않고 형용사만으로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과거형에서만 가능하다.(《마라손에서 1등을 한 영순이는 기뻐다.》, 《그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가슴이 아팠다.》)

이와 함께 미래시간도 《겠》이 붙을 때 2인칭, 3인칭에서 1인칭과 똑같이 쓸수 있다.

례: ○ 3대혁명붉은기직장의 영예를 지닌 동무들은 기쁘겠소.

○ 그들이 외투를 입지 않았으니 춥겠다.

우의 실례와 같이 쓸수 있는것은 토 《겠》의 추측의 의미와 관련된다.

로어, 중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에서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나타낼 때 조선어에서와 같은 구별이 없이 모든 인칭에서 똑같이 쓴다.

례: ○ Мне весело. 我(很)高兴. (나는 기쁘다.)

○ Тебе весело. 你(很)高兴. (너는 기뻐한다.)

○ Ему весело. 他(很)高兴. (그는 기뻐한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조선어의 형용사를 쓰는데서 오류를 범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된다.

다음으로 규정토 《는》과 《ㄴ》과 관련된 문제이다.

규정토는 단어나 어떤 단위에 붙어서 문법적형태를 이루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하는 서술토이다.

규정토는 조선어토들가운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토의 하나이다.

규정토는 시간의 의미도 나타내기때문에 시간토라고도 할수 있다. 규정토가 표현하는 시간적의미는 다른 자리토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다.

현대문화어의 《조선어를 배우는 옥이》의 《는》이나 《영화를 보는 학생들》의 《는》이 현재의 시간적의미를 나타내는것은 이 토가 중세조선어에서 현재진행의 시태적의미를 나타내던 토에서 왔기때문이며 《영남이가 만든 책상》에서의 《만든》의 《ㄴ》이 과거의 시간적의미를 나타내는것은 중세조선어에서 과거지속의 시태로였던 《니》에서 모음 《ㅣ》가 탈락되어 《ㄴ》이 규정토로 넘어간 사정과 관련된다. 그렇기때문에 《는》은 동사에만 붙으며 그것이 형용사에 붙으면 그 형용사는 동사화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잘 모르거나 그에 숙련되지 못한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은 형용사에도 토 《는》을 써서 오류를 범한다.

실례로 《그들은 덩는 기숙사호실에서 생활한다.》, 《푸르는 벌에 희는 학이 많다.》, 《학생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한다.》와 같이 말하거나 글을 쓰는것을 들수 있다.

형용사에 《는》을 쓸수 없는 원인은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나 성질, 특성이 말하는 순간보다 먼저 이루어져서 그것이 말하는 순간까지 지속되는것과 관련된다.

실례로 《맑은 물이 흐른다》에서는 물이 말하는 순간에 맑아지는것이 아니라 이미 맑게 된것이 말하는 순간까지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맑은 물》에서 《은》은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는것이다. 따라서 형용사에 규정토 《ㄴ/은》이 붙으면 현재로 된다.

《크다》, 《어둡다》를 비롯한 일부 형용사에는 동사처럼 현재시간을 나타내는 규정토 《는》이 쓰일수 있다.

실례로 《날이 어둡는 저녁때여서 그들은 걸음을 다그친다.》, 《빨리 크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기쁘다.》에서 《어둡는》, 《크는》의 《는》은 형용사 《어둡다》, 《크다》에 쓰이어 이 형용사들에 행동성을 부여하여줌으로써 그것을 동사화하였다.

이처럼 《어둡다》, 《크다》와 같은 단어들에 규정토 《는》도 쓰인다고 하여 그것이 형용사에도 속하고 동사에도 속하는 품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규정토 《는》과 《ㄴ/은》이 다 같이 쓰일수 있는 이러한 형용사들의 쓰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은 자주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실례로 《큰 나무를 가져오라.》라고 해야 하는데 《크는 나무를 가져오라.》라고 하거나 《맑은 물을 마시자.》라고 할것을 《맑는 물을 마시자.》라고 하는것을 볼수 있다. 규정토 《는》을 쓸수 없는 형용사에 규정토 《는》을 쓰면 상대방은 그것을 오류로 알고 인차 리해 할수도 있다.

그러나 규정토 《는》과 《ㄴ/은》을 다같이 쓸수 있는 형용사들인 경우에는 어느 토를 쓰는가에 따라 말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는》과 《ㄴ/은》이 나타내는 뜻을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이상에서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의 조선어로습득과 사용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았다.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은 자주 틀릴수 있는 이러한 토들에 관심을 돌려 그것들을 원리적으로 습득하고 부단히 숙련해나가야 할것이다.

(필자는 중국실습생임)